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빈곤은 '강 건너 불' 아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다. 거기가 길어지는 노년... '할중마', '할저씨' 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최악 중에서 가장 악하고 범하지 않았던가. 지구촌 최악의 노인빈곤·노인불행·노인자살 일등국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세계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모두가 빈곤으로 가는 길이 유일한 미래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국가들 중 경제 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전 세계 인구 중 25% 정도가 식량난과 식수난을 겪고 있다는 지표를 보더라도 먹을 걱정이 마실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사회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노인빈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인 12.6%보다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논하는 시점에서 나온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이다. 현재의 노인층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일군 세대다.

또한 높은 교육열로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주었다. 그리고도 대한민국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종교적 맹신에 가깝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대략 2억 7000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

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봐야한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뽕기루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성인이 된 자녀의 경제적 뒷바라지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노후대비는 뒷전이 되었고,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노인복지의 미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반증한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정작 부모들 스스로는 별 노후대책이 없이 영감결에 노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다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정통 가치관이 무너져 자식에게 기

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삶을 고달픈 수밖에 없다.

돌아켜 보면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또 세계적 석학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孝) 사상과 경로사상을 '은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라 말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분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현실이 몹시 부끄럽다. 게다가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인빈곤의 명암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청 통계는 65세 이상 노인범죄가 매년 증가해 2013년에만 무려 7만7천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구조와 열악한 환경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제 노인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의 범주를 넘어 국가적인 책무가 되었다.

연금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려야 한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社說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해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1만명을 넘었다니 홍보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며 서울시내 교통신용카드 지원 신청서를 낸 70세 이상 고령자는 1만183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면허를 반납했지만, 교통카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못한 70세 미만 반납자를 고려하면 실제 반납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납 인원이 급증한 데는 서울시의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한몫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매초 1천명을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2주 만에 3천명 넘게 몰리자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

올해 들어 반납자가 크게 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서울 지역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비율은 0.1~0.2%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63만명 중 0.2%인 1천387명만 면허를 반납했다.

그사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1만8천662건에서 지난해 3만55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서울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6.8%에서 14.0%로 늘었다.

교통카드 신청은 9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와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로 하면 된다.

서울시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사례는 여타 지자체에게도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수칙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여름철(6~8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66명이며 7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1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기타 10%(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세 이하'가 약 40%(60명)를 차지하고 20대가 약 30%(50명) 뒤를 이었으며 30·40·50대가 각각 10%(각 16명)내외로 엇비슷했다.

물놀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부주의 인만큼 물놀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행동화하여 건강한 휴가철을 보내야 할 것이다.

물놀이를 하기 전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입수하기 전에는 심장에서 먼 팔, 다리→얼굴→가슴 순으로 적셔줘야 한다. 물놀이 도중 목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경우 재빨리 물에서 나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구명조끼와 튜브를 착용하여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구명조끼는 체형과 몸무게에 맞춰 입고 튜브는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인 70~80% 정도의 공기를 채워 놓는다.

이는 햇빛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평

창하여 타지는 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몸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생존수영을 배워야 한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당황하면서 동작이 많아지고 이는 급격한 체력소모로 이어진다. 만약 물에 빠졌다면 당황하지 않고 체력소모부터 줄이도록 한다.

먼저 침착하게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 뒤 물 위에 누워 부력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양 팔을 위로 크게 벌리고 다리를 수면 밖으로 뜨게 만든 후 엉덩이는 살짝 내리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 위에 뜬다.

이때 머리는 뒤로 젖혀 귀가 물속에 잠겨야 하고 온 몸에 힘을 빼야 한다. 막상 물에 빠지면 당황하여 위의 동작들을 하기 쉽지 않으나 얇은 물가 등에서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생존수영을 몸에 익혀두도록 하자.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빠른 시간 내에 물 밖으로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의수자를 평평한 곳에 놓은 후 △사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흉부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한 세트로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머리에 상처가 있고 팔다리가 무기력하게 늘어졌다면 경주순상 가능성을 염두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경주순상이 의심될 때는 이마를 누르지 말고 턱만 들어 올리는 하악저상법을 사용한다.)

물놀이하기 전 위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면 물놀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수칙을 기억하고 행동화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도록 하자.

김성교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사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21 (2인)

호남신문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